

# 약 되는 쑥·미나리로 '으랏차차~'

## 향토기업 '화순불미나리(주)'

최근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친환경 농업으로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유기농전문 기업이자 향토기업인 화순불미나리(주)의 제품이 눈길을 끈다.

화순불미나리(주)는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동북댐 발원지 화순군 북면 송단리 일대에서 불미나리와 인진쑥 등 약용작물을 특허받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뒤 이를 가공해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유기농으로 키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불미나리와 인진쑥으로 즙을 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선 미나리는 나물이나 반찬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시원한 맛을 내거나 독특한 향으로 각종 요리재료로 쓰인다. 탁월한 숙취해소와 해독능력이 탁월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타민 A, B1, B2, B6, C 등이 다양으로 함유돼 있고, 단백질과 철분, 칼슘, 인 등 무기질도 풍부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화순불미나리(주)는 지난 23년동안 농약과 화학비료 한방울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국내 유기인증은 물론, 2005년 일본의 유기인증(JAS)을 받았다. 2007년 미국유기인증(NOP-USA)도 획득해 그 품질과 안전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예부터 한방 약재와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해 왔던 인진쑥 역시 유기재배를 하고 있다.

현재 화순백아산 골짜기는 복삼의 원산지로 비옥한 토양에서 자생하는 인진쑥을 인근 골짜기에 옮겨 심어 전국 최대의 인진쑥 유기재배



### ■ 불미나리인진쑥즙

한·미·일 유기농 인증 획득 단백질·철분·칼슘 등 풍부 숙취 해소·해독 능력 탁월

단지를 조성한 상태다. 화순불미나리(주)의 인진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국내 유기인증과 미국, 일본의 국제유기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체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봄에 이식·파종 후 1년 만에 단 한번 수확하고, 자연건조해 장기간 숙성 보관한다.

이렇게 정성껏 유기농법으로 키운 불미나리와 인진쑥에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는 오미자를 넣어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불미나리 인진쑥즙'이다. 유기농불미나리 추출액 55%, 유기농인진쑥 추출액 30%, 오미자 추출액 15%가 들어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



### ■ 인진쑥을 담은 불미나리

쑥68%·미나리 25%·당귀 3% 100% 국내산 원료에 첨가물 '0' 면역력 쑥쑥 ... 선물용 '인기'

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술을 자주 마시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다. 아이들의 탄산음료 대용으로도 판매가 많으며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상품으로는 장기숙성된 유기농 인진쑥을 12시간 정성껏 다려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순수 100%의 '유기인진쑥 원액'이 있다. 평소 위나 장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한 사람, 손과 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에게 효능이 좋다. 직접 마시는 것 외에도 쑥차나 쑥밥, 각종요리에 첨가해도 좋으며 마사지용 등 미용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유기인진쑥 원액

백아산 인근 최대 유기재배단지 위장질환·수족냉증 효과 요리 첨가·마사지 등 활용 다양

'인진쑥을 담은 불미나리' 제품은 앞서 '불미나리 인진쑥즙'과 비슷하나 원료의 깊은 맛은 더하고 단맛을 없앴다. 유기농 인진쑥 추출액 68%, 유기농 불미나리 추출액 25%, 유기농인진쑥 추출액 3%, 당귀 등이 함유돼 있다. 100%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진 데다,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으로 포장에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 좋다.

해당 제품들은 화순불미나리(주) 홈페이지 (<http://ehwm1.cafe24.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가족사랑 자라는 담양 황금마을 '도시가족 주말농장'

### 농협광주본부 체험 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1일 광주시와 함께하는 '2018 도시가족주말 농촌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농촌체험 행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도시가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담양 황금마을을 찾아가 유기농 쌀 채소수확과 장아찌 담그기, 천연염색 체험 등 농산물 수확과 수확 농산물을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말농장체험은 초등생을 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촌마을을 방문해 계절마다 각기 다른 영농, 수확체험과 농산물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9회 진행돼 총 450여명의 도시가족이 참여했으며, 매회 사전 마감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국제기구·해외기업 연구소 파견 농식품부, 한달간 인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인턴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에게 해외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농식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31일이며, 농식품부는 선발된 인턴에게 3개월간 해외 체재비와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파견 기관은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와게닝겐연구소, 페슬 인스트루먼트) 등 세계 인지도가 높은 국제기구와 해외연구소다.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http://www.mafra.go.kr))와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unrecruit.mofa.go.kr](http://unrecruit.mofa.go.kr)),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http://www.epi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분쟁 완화 조짐에 지수 상승 미 추가 금리인상 보류시 시장 긍정적 코스피 상장기업 배당액 32조 사상 최대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0.25%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뒤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발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물가가 정책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는 등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된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국기준금리가 2.25%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기정사실이 보이고 내년에도 3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내 채권시장도 이번 금리인상은 예상된 결과로 받아들여지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국내증시는 G20 미·중 정상회담간 무역협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과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으로 Fed 통화긴축 노선의 경로선회 가능성이 부각되며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10월 마지막주 대형 '음봉'을 돌파하지 못하며 박스권 흐름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올해를 마감하는 12월 증시도 미·중 무역분쟁 합의안 도출과 내년 미국 금리인상속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벤트 진행과정에 따라 시장 등락이 예상된다.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로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난 1985년 일본의 플라자합의와 같이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전향적인 합의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정상간 추가금리인상 보류 등 큰 틀에서 완화적 흐름이 나온다면 12월 증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정부의 '중국제조 2025' 포기 또는 실질적인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환율, 관세부과, 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는 19일 예정된 미국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의장이 "미국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미 연준의 점도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2019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12월 점도표의 변화가능성과 미 연준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스텐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제롬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점도표가 3회에서 2회이하로 수정된다면 달러강세와 자금이탈로 고전하는 이머징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12월 연말 배당시즌을 맞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액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해 사상최대치인 32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총금리가 1.9%수준인 상황에서 코스피 현금배당수익률이 2.5%에 근접하고 있다. 코스피 배당수익률을 상회하는 업종은 에너지, 은행, 보험, 증권, 통신, 반도체, 화학 순이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 1588-2219